

# 고1 주요 교과서 강의 EBS로 듣는다

## ‘국·영·통합 사회·과학’ 32개 교과서 전체 무료 서비스

### 내년 고2·고3 확대 계획...학교수업 집중도 하락 우려

고1 학생들이 이달부터 EBS를 통해 국어와 영어 등 4개 주요과목 교과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를 좁히고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학교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와 협력해 고교 1학년 주요 교과에 대한 교과서 강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의 대상 교과는 고교 1학년 국어(교과서 11가지)·영어(11가지)·통합사회(5가지)·통합과학(5가지)이다. 출판되는 32개 교과서 전체가 서비스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

고자 EBS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왔지만 EBS 교재가 아닌 교과서로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서 강의는 기본개념 학습 강의, 시험 대비 특강, 학습동기 유발 클립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다. 과목 당 학습 강의는 32~36편, 시험대비특강은 8~10편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들 4개 과목 교과서 강의를 학생들이 원할때 들을 수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생이나 수업을 보충하고 싶은 학생, 예습·복습을 하려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의 영상이 학생과 교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몸이 아파 결석을 하는 등 수업결손이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별개로 학원강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비 절감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강의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고2·고3용 선택과목 교과서로 강의하는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과서 강의는 EBS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와 EBS고교강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BS 교과서 강의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지역 A고 1학년 부장은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이 아예 수면실로 전락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EBS교재를 넘어 학교 교과서를 EBS가 강의하게 되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학교 교육만큼은 학교 선생님들

께 맡겨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국·영·수만큼은 농·산·어촌에도 유능한 선생님이 많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 수업이 황폐해질 소지가 적지 않다”며 “문제풀이 중심, 시험대비 중심으로 교과서 강의가 흘러가선 안되고 실험하는 강의나 몇 과목을 융합하는 강의로 학교 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BS 교과서 강의가 학생들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같은 개념에 대해 학교 교사와 EBS 강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교재 연계 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0    달뜨기 13:12  
해질 19:12    달지기 02:21

### 비 오는 아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15/18	보성	비온뒤	14/17
목포	비온뒤	14/18	순천	비온뒤	14/17
여수	비	13/15	영광	비온뒤	14/18
나주	비온뒤	15/17	진도	비온뒤	14/17
완도	비온뒤	14/18	전주	비온뒤	13/17
구례	비온뒤	14/18	군산	비온뒤	11/15
강진	비온뒤	15/18	남원	비온뒤	12/18
해남	비온뒤	15/19	홍산도	비온뒤	11/12
장성	비온뒤	14/18			



###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남동~남	북동~북	남동~남	북동~북
남해	남해	0.5~2.0	0.5~1.5	0.5~1.5	0.5~1.5
남해	남해	1.0~2.5	1.0~2.0	2.0~3.0	2.0~3.0
남해	남해	0.5~2.0	0.5~2.0	0.5~2.0	0.5~2.0
서부	서부	2.0~3.0	2.0~3.0	2.0~3.0	2.0~3.0
서부	서부	2.0~4.0	2.0~4.0	2.0~4.0	2.0~4.0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24	14:48	09:05	21:29
여수	10:48		04:12	
	22:56		17:04	

###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5/1(화)
☀	☀	☀	☀	☀	☀	☀
11/22	9/22	11/21	10/24	12/25	12/24	13/25

## 5월 이른 더위...6월 잦은 비

### 광주기상청 5~7월 날씨 전망...7월 덥고 습해

광주·전남은 5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낮 기온이 높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 3개월 전망(2018년 5월~7월)’을 통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5월부터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5월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과 밤의 기온의 일교차와 커지고 5월 평균 기온은 평년(17.0~17.4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월 평균기온은 평년(21.1~21.5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7월에는 일시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7월 평균 기온은 평년(24.2~25.2도)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5월 강수량은 평년(98.6~131.5mm)과 비슷하겠고, 6월 역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평년(147.1~233.1m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7월 강수량은 평년(213.9~300.1mm)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지성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올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기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부터 일찍 폭염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7월에는 일시적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7월 평균 기온은 평년(24.2~25.2도)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5월 강수량은 평년(98.6~131.5mm)과 비슷하겠고, 6월 역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평년(147.1~233.1m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7월 강수량은 평년(213.9~300.1mm)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지성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올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기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부터 일찍 폭염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영기자 young@



책 읽는 이에게 빨간 장미를... 23일 광주 북구청 행정자료실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 행사에서 도서담당 직원이 책을 대출하는 선·후배 직원들에게 장미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식당·카페서 350m 떨어진 주차장이라니요”

### 동구 지산유원지 공용주차장 위치 논란...주민들 불만 제기

광주시 동구가 지산유원지 인근에 조성하는 공용주차장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예산 25억원을 투입, 지난 20일 62면 규모 공용주차장(지산동 105번지·3467㎡ 규모)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동구는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분야 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동구는 지산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산유원지 일대는 주말이면 카페나 식당을 찾는 시민들이 몰리며 인근 도로(양

북 2차로)가 불법 주차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하지만 동구가 주차장을 조성중인 부지는 교통 혼잡지역과 350여m 떨어진 지산파출소 맞은편으로, 주차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식당, 카페업주들은 교통혼잡지역과 동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식당업주 A씨는 “주말이면 시내버스

(두암 81번)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면서 “현재 조성중인 공용 주차장 위치는 교통 혼잡지역과는 다소 먼 곳으로,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차장은 부지확보가 관건인데, 지산파출소 맞은편 부지는 동구 소유지로 주차장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등파크호텔 인근도로는 불법 주차차 단속을 강화해 공용주차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시’ 조성국·‘소설’ 박철수·‘동화’ 한완식

### 5·18 문학상 신인상 선정

5·18 기념재단은 5·18문학상 올해 신인상 수상자로 시 부문 조성국·‘출’, 소설 부문 박철수 ‘덧’, 동화 부문 한완식 ‘소문’을 23일 선정했다.

조성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집단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의 기억으로 내밀하게 풀어냈다.

박철수는 ‘고시원’에 살며 취업에 목

매는 청년 애환을 그려냈다. 자존감 상실과 회복이라는 두 축을 넘나드는 과정이 정치 상황에 따라 위상이 바뀌었던 5·18을 연상케 한다.

한완식은 1980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어린이의 심리를 통해 향정이 남긴 고통을 표현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9일 오후 7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

# 제51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8. 5. 12(토) - 13(일)  
황도현 전적지 및 정음시 일원

주최 | 정음시

주관 |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문화재단, 전도교

5월 11일(금)

시간	행사명	장소
11:00	124주년 동학혁명황도현전승기념식(천도교)	기념탑

5월 12일(토)

시간	행사명	장소
10:00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중리
11:00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 이야기’	행사장
13:30	정음 무형문화재 발표회1 - 판소리	야외특설무대
14:00	정음 무형문화재 발표회2 - 정음농악	야외특설무대
18:30	문화예술공연 ‘여인 1894’	교육관
	제51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제8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야외특설무대
	음악과 함께 떠나는 혁명 이야기	

5월 13일(일)

시간	행사명	장소
09:00	제21회 황도현 전국농악경연대회	행사장
10:00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전국역사퀴즈대회	야외특설무대
11:00	구민사 감오선열 제례 및 위패봉안례	구민사
13:30	제12회 황도현전국청소년토론대회 결선	교육관
16:00	장기발랄페스티벌	야외특설무대
	2018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특설무대

● 상시프로그램

- 신달목장터(체험, 먹거리, 휴식공간)
- 동학 OX퀴즈

● 전시프로그램

- 특별기획 ‘동학농민혁명으로 꿈꾸는 통일 이야기’
- 기념관 특별전시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